순례 코스서 만날 주요 불교성지



순례처 곳곳마다

총 길이 1,167km. 서울과 부산을 편도로 3번 가는 만만찮은 거리이다. 그 고행의 순례길 43일간의 대장정이 2월 9일 드디어 닻을 올린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는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걸었던 붓다로드의 궤적을 직접 좇으며 발자취를 새긴다.

〈C9에 계속〉



순례자들이 모이는 도시

바라나시(순례단 도착지) 바라나시는 강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도시이다.

여기에서 시간의 흐름은 강가와 같은 장구한 윤회를 걷는 것 같고, 모든 작은 길은 강변으로 통하고 있어서 설사 길을 잃는다고 해도 순례자들을 어느 사이엔가 강변으로 데려갈 것이다.

힌두 신앙에 의하면 강가의 성스러운 물에서 목욕 하면 모든 죄가 씻기고, 이곳에서 죽어 그 재를 강가로 흘려보내면 윤회로부터의 해탈을 얻는다고 믿는다. 이것은 힌두교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부처님 머물며 法을 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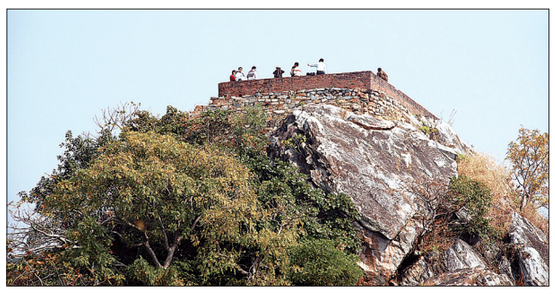
라즈기리(영축산 기도법회/죽림정사, 아자트사투르 스투파)

라즈기리(王舍城)는 석존 당대 강국이던 마가다(Magadha) 왕국의 수도였다. 부처님께서 이곳에 도달했을 때, 당대의 왕 빔비사라가 그의 거룩한 모습에 감복해 자기 국토의 일부를 떼어줄테니 이곳 라즈기리에 머물기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요청을 거절하고 이에 빔비사라왕은 이후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이곳을 방문해 그 깨달음을 전해줄 것을 부탁했다고 한다. 이후 깨달음을 얻게 된 부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곳에 와 빔비사라 왕과 12만명의 바라문 및 장로들에게 설법을 펼쳤다.



인도 대표하는 성스러운 강

갠지스강 힌두교도들이 성스러운 곳으로 숭배하는 강이다. 우타르프라데시 주 북쪽 끝에서 발원하는 바기라티 · 알라크난다 · 만다키니 · 다울리강가 · 핀다르 강의 합류로 형성되며, 우타르프라데시 · 비하르 · 서벵골 주에 걸쳐 있는 갠지스 평원을 가로지르며 남동쪽으로 2,510㎞를 흐른다. 우타르프라데시 중에서 야무나 · 람강가 · 가가라 강, 비하르 중에서는 간다크 · 부르히간다크 · 코시 강 등 주요지류를 받아들인 후 방글라데시 중부에 들어선 갠지스 강은 북동쪽 하구에는 이 많은 분류들이 벵골만으로 유입되면서 형성된 너비 320㎞의 삼각주가 인도와 방글라데시 양국에 걸쳐 펼쳐져 있다.



부처님 대표 경전 설법처

영축산 부처님께서 라즈기리에 머물때마다 즐겨 주석하셨던 곳으로 법화경 및 보적경, 대집경, 허공장경등 대승경전에 속하는 많은 경전이 행해진 곳도 이곳이다. 현재 이곳 영축산 정상부에는 1903년에 복원된 설법좌, 즉 여래향실의 기단부만이 남아있고 출토 유물들은 나란다 박물관에 보관되어있다. 이곳으로 올라오는 길은 부처님의 편의를 위해 빔비사라왕이 닦았다는 것으로 두개의 작은 탑이 남아 있다. 첫번째 탑은 석존을 뵈러 오르던 빔비사라 왕이 수레에서 내려 걷기 시작한 자리임을 알리는 것이고 두번째 탑은 빔비사라 왕이 시종마저 배재하고 홀로 부처님께 향했던 자리임을 알리는 것이라 한다.



처음으로 불법 전하다

녹야원(사르나트)=원만회향 발원 기도 및 입재식

석가모니가 최초로 불법을 전한 땅으로 유명한 녹야원(사르나트)은 석가모니가 보리수나무아래서 깨달음을 얻고 같이 수행한 5명의 형제들과 처음으로 불법을 이야기한 곳이다. 그 안에는 다메크 스투파라 불리는 불탑과 큰 수도원의 흔적, 고고학박물관등이 함께 위치해 있다.

초전법륜(初傳法輪)지라고도 불리는 녹야원은 옛 경전에 녹야원으로 기록돼 있는데 그 이유는 예전에 왕이 이곳에다 사슴을 풀어놓고 살도록 했다고 해서 이름 지어졌다고 전해진다.



포교활동 전초기지

죽림정사 부처님이 계시던 당시 현 인도땅의 동북지방에 있던 (마가타)국의 수도인 라자그라하(일명 왕사성)는 부처님께서 최초로 본격적인 불교 포교활동을 벌이신 곳으로서 이곳 영축산은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법하신 것으로 유명하고 또 당시 마가타왕국의 국왕 빔비사라왕이 기증해 부처님과 제자들이 우기에는 이곳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모아 가르쳤다는 죽림정사터가 이곳에 있다. 당(唐)의 현장 스님은 〈대당서역기〉에서 죽림정사 서남쪽으로 5~6리 가면 남북쪽 큰 대나무 숲 속에 커다란 석실이 있다고 언급하고, 이곳이 마하가섭 존자가 대아라한 999명과 함께 삼장을 결집했던 곳이라고 소개했다.

부처님, 정각 이루다

보드가야(부처님 성도지 마하보디대탑 기도법회)



불교 성지 중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이 바로 이 성불의 땅, 보드가야이다. 부처님께서 구도의 일념으로 부귀영화를 버리고 29세의 나이로 출가한 이래, 고명한 선인들을 찾아 가르침을 청했으나 만족한 답을 듣지 못하자 입산해 6년간 모진 고행을 수행하였음에도 올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육체를 괴롭히기보다는 육체를 맑게 가짐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하산한 바, 그때 네란자다 강으로 내려가 목욕을 하시고 마을 소녀 수자타가 공양해 준 우유죽으로 체력을 회복하신 후 지붕처럼 가지를 드리운 큰 나무밑에 앉아 명상에 잠기시어 마침내 정각을 성취, 성불하신 곳이 바로 이곳 보드가야이다. 부처님의 성불 이래 그 나무는 보리수라 불리워졌고, 현재는 부다가야에 있는 보리수나무는 득도 당시의 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의 손자뻘 되는 보리수이다. 아쇼카대왕이 스리랑카에 불법을 전파하면서 부처님께서 그 아래서 깨달음을 얻으신 보리수나무의 묘목을 보냈으며, 지금도 스리랑카 북방의 아누라다푸라시에 살아있어 2000년이상의 수령을 자랑하는바 스리랑카의 그 보리수 묘목을 다시 인도로 들여와 부다가야와 사르나트(녹야원)에 심었다고 하니 현재의 보리수는 제 3대인 셈이 된다. 보리수나무 아래에는 부처님께서 좌선 하고 있었다는 금강보좌가 있고, 그 돌에는 아쇼카시대 양식을 전하는 기하학무늬의 릴리프가 조각되어 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장소에 건립된 높이 52m의 9층 탑 내부에는 부처님의 좌상이 안치돼 있고 주위에는 4개의 소탑이 둘러싸고 있는바 이곳을 대보리사라 칭하며 보리수, 금강보좌와 함께 성지순례자 필견의 명소로 되어있다.

이곳에서 순례단은 부처님 성도의 상징인 마하보디 대탑을 참배하고, 수자타 마을도 방문한다. 보드가야는 조계종서 건립한 첫 인도 사찰인 분황사가 자리하고 있다. 또한 인도순례단은 보드가야 마하보디 대탑서 기도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화계사

癸卯年 밝아오는 새해에도 각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로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화계사 사부대중은 서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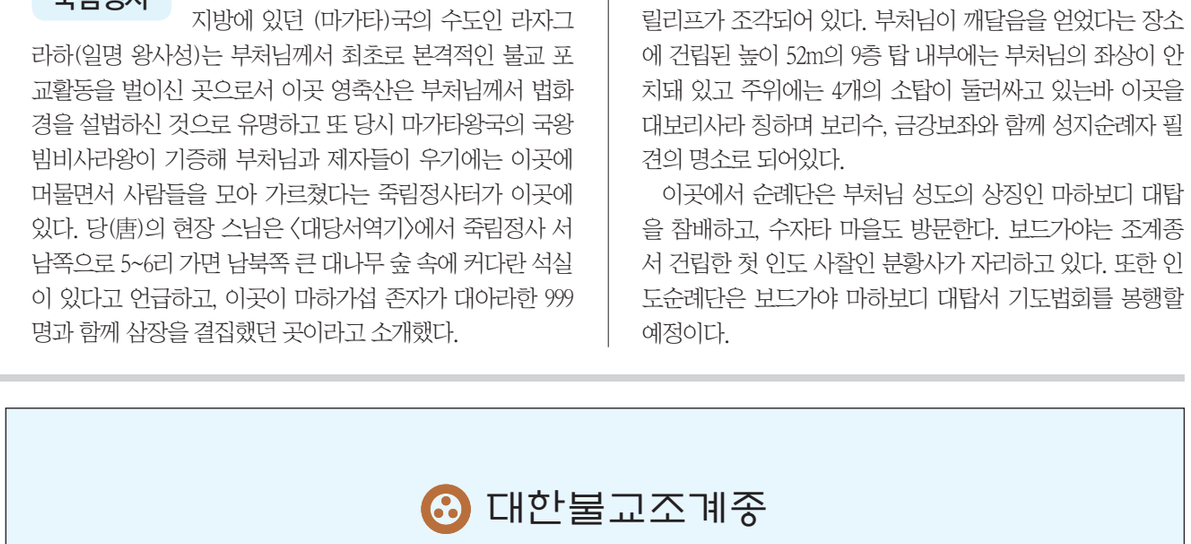
조 실 송원 설정
회 주 성광
선 덕 견향
주 지 우봉

사부대중 일동



서울특별시 강북구 화계사길 117(수유동)
☎ (02)902-2663 Fax (02)990-1885 www.hwagyesa.org

대한불교조계종
호암산 호압사
날마다 좋은날 되세요
호압사 대중일동



서울특별시 금천구 호암로 278 (시흥동) www.hoapsa.org
전화 02)803-4779 팩스 02)891-0770